

# '96년 멀티미디어 현황 및 '97년 전망 토론회

우리 협회 멀티미디어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17일~18일에 “'96 멀티미디어 현황 및 '97 전망”이라는 주제로 멀티미디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과 협회가 지난 '96년 11월에 실시하였던 멀티미디어 현황 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박석규 뉴미디어팀 과장>

## 멀티미디어의 전반적인 추세와 우리의 대응방안

김 건 중 삼성전자 멀티미디어추진실 전문

### 환경의 변화

- 정보통신 산업구조의 Paradigm shift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통신분야에서는 시외와 시내 전화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새로운 통신법의 개정에 따라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지상과 위성, Infra와 Contents, Business와 가정, 공중과 자영, 서비스와 기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 각 사업간의 영역이 애매모호해지는 상호 융합과 결합의 복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규제환경의 변화와 CATV의 활성화로 CATV업체들이 Cable 전화사업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Cable 모델에 PC를 접속하여 On-Line Service로 확장한다던지, 인터넷 접속과 쌍방향 서비스를 통해 신규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 한편 기존 전화회사들의 경우에는 VDT, VOD, ITV(Internet TV) 등을 통해 쌍방향 영상 서비

-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거리 전화회사와 CATV회사간의 합작을 통한 PCS 서비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CATV 서비스와 지상 유선방송과의 경합(DBS 대 Direct TV) 현상이 경쟁자와의 협조 또는 대립과 합병 등 복잡한 교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무선 주파수 경매로 기기업체가 전국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과 Paging, 고속데이터를 어떻게 총망라하여 수직통합화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수평통합이 될지의 교착점에 있다. PCS 운영으로 인한 전략적인 제휴로서 시내, 장거리 CATV 운영회사들의 새로운 합병으로 위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Teleco의 미래와 분기점, 통합 정보제공업자의 향후는?  
규제완화로 인해 시내와 장거리, 음성과 영상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고, Transport 부분의 Commodity화의 진전으로 Carrier Business의 확대, 업무의 다각화, 국제화를 통해 업체들은 부가가치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 멀티미디어 PC, CD-ROM, 인터넷 등의 이용으로 실제 멀티미디어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Carrier와 Cable 사업자들이 시범사업을 시도하고 있다.
- 각국들은 정부주도하에서 21세기 정보화사회 정

책을 내세워, 여러 분야에서 전자화, 정보화의 모든 분야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 PC와 CD-ROM의 성장으로 멀티미디어사회의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다. CD-ROM의 주된 흐름은 가정용은 Edutainment, Business용으로는 Presentation, Training용이다.

미국의 경우 멀티미디어에서의 영상산업이 급성장하면서 Creator, Computer Engineer, Multimedia Producer 제작 Tool, Venture Capital 같은 것들이 필요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개인 가정형 PC, CD-RO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pocket용 멀티미디어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On-Line Service가 성행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신규 Business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 인터넷과 Superhighway

인터넷을 응용하는 것으로는 Electronic messaging(우편, 음성메일, 비디오메일), Electronic Marketing(광고, 브로셔 등), Electronic Commerce(카타로그, 사이버, 비즈니스), File Transfer, Discussion group(forum, chat 환경) 등이 있다. Carrier, Operator, Service Provider 등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가 증대하여 인터넷은 National Infrastructure로서 변모하고 있다.

또한 User의 Net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Virtual Community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은 세계규모의 자연망으로 공중 네트워크와 대립되지 않는다.

## 대응방안

현재 Set-Top Box는 150불~200불 수준으로 더 이상 하드웨어로는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Non-PC OS로 "Windows C"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가전에 OS를 탑재하겠다는 것이다. 필립스, 소니, 샤프 등 세계 유수의 가전사들도

정보통신 분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NC의 등장 등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환경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비되어 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멀티미디어 Producer, Digital 제작 Tool 등 멀티미디어 실현을 위한 주요 요소들이 부재상태에 있으며, 기반은 취약한 상태에서 한쪽으로만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련 정부 정책의 수립과 멀티미디어 인력 양성, 특히 Creator, Multimedia Tool Developer 등에 대한 인력 양성에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법안의 정비를 숙고하여야 한다.

## 멀티미디어 정책 전망

박한규 연세대학교 교수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한 발, 착신 데이터가 '93년 기준으로 10조 비트를 상회하고 있다. 비트량으로 볼 때, 데이터 통신량이 음성 통신량을 초과하고 있다.

1995년 5월 데이터레스트사의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세계 멀티미디어 시장은 총 6천5백억 달러 규모로 커뮤니케이션 제공이 2천억 달러, 하드웨어가 2천억 달러, 콘텐츠가 1천억 달러, 민생 전자기기가 1천5백억 달러 규모이다. 향후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의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97년에는 국내업체들의 광통신 임대사업등 해외 진출이 예측되며 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임대사업 진출시 Contents 및 SW 등 부가적인 내용 측면에서의 병행 진출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멀티미디어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97년 SW 개발자금으로 총 1천3백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미디어밸리 등 멀티미디어 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들이 단지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 지역의 추진사항을 인가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

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인력양성, 기술력 향상 등이 중점과제로 예측된다.

## 컨텐츠의 흐름과 주요 이슈

### 향 선 채 현대미디어시스템 실장

#### ○ 현 황

MPC, CD-ROM Drive 등 하드웨어의 확산에 힘입어 CD-ROM 타이틀 시장은 급신장하면서 출판사, 신문 및 방송사, 음반사 등 기존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장 참여가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 반면, TV 계열 Title은 하드웨어 보급의 미흡으로 타이틀 시장도 위축되어 왔다.

#### ○ One-Source Multi-Use

원천소스의 확보, 전세계적인 저작권 강화 추세 등에 따라 타이틀 업체들은 소스를 기 확보하고 있는 업체(출판사, 신문사, 방송사)의 Source Re-use에 의해 Content를 개발하거나 Source 확보를 위해 업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향후 이처럼 타이틀 개발을 위한 Content Source 확보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 Content 제작 환경의 변화

Authoring 환경에 있어서 저작도구는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으로 이원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고 첨단 입력장비(3D Scanner, Motion Capture System 등)의 활용으로 제작시간은 단축되는 반면 Quality는 더욱 향상되고 있다.

한편 Internet 등장 이후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Internet Content 개발을 위해 기존의 제작 도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고 있으며 웹 브라우저는 플러그인이라는 확장기능을 사용하여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저작도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기술환경적 측면에서 DVD의 상용화로 저장용량의 Giga Byte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MMX (MultiMedia Extention) 기술의 등장으로 멀티미디어와 통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양방향 비디오와 가상현실, 음성인식이 가능하고 2D 및 3D 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출력, 영상데이터 압축, 재생 등에 걸리는 시간을 지금의 절반에서 10분의 1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Content의 내용과 영역면에 있어서는 TV 연속극, 교양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전시회의 타이틀화 등 다양한 Source를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 오디오 CD 플레이어에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Enhanced Music CD의 제작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인터넷은 Package계에 대응하는 멀티미디어의 주요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 내용도 출판, 교육, 의료, 유통정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현재 상업용 인터넷 사용자 수는 연간 300~400%씩 성장하고 있으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수는 '95년 7월 1만 7천여개에서 '96년 7월에는 7만 6천개로 증가하였다.

## 국내 멀티미디어 현황 조사 결과(요약)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지난 '96년 9월~10월까지 협회가 국내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동 설문은 멀티미디어 관련 국내 45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07개사가 설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멀티미디어를 주력으로 하는 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43%였다. 주력업체와 비주력업체를 비교해볼 때 멀티미디어 주력업체들은 자본금, 종업원수, 설립년도 등 사업환경과 규모면에서는 비주력업체에 비해 다

소 열위에 있으나 매출액 규모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높은 성장세를 보여 멀티미디어 주력업체들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업체들의 멀티미디어 관련 사업 방향은 네트워크형 멀티미디어를 추구하는 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은 기술인력 10명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어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금 규모 50억원~100억원의 중견기업들은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인력을 4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 중견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반증하고 있다. 업체들이 최근 1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연구 수행중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On-Line Service 시스템, CD-ROM Title, 멀티미디어 응용 SW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의 멀티미디어 사업 추진 상의 애로점으로는 기술인력의 부족→기술개발자금 조달→기술력 취약→사업기회의 발굴→기술개발 자금 조달→기술력 취약→사업기회의 발굴→유통채널 확보 등의 순으로 애로를 표시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제품의 Up-Grade 주기는 6개월 내외가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멀티미디어 분야의 사업 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응 정도에 있어서는 자본금 규모 50억원~100억원 사이의 중견기업들이 대기업들 보다 오히려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 관련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업체들은 SW기술, Contents, Network기술, HW 기술의 순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SW 기술은 타 기술부문보다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업체들이 SW기술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 표준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의 기업이 표준정보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어 산업 정보에 대한 업계 제공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추구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 분야 및 사업방향에 있어서는 인터넷/인트라넷 및 온라인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한 응답(전체의 57%)과 네트워크형 멀티미디어를 추구하겠다는 응답(70.2%)이 매우 높아 향후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에 업계의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협회간행물판매

협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을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판 또는 시내 유명서점에 가시며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총 판 : 도서출판 진한도서 (전화 : 319-3535)
- 간행물목록 : - '95정보통신사업실태조사 「부가통신서비스편」 (10,000원/권)
  - 외국의 정보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도 및 현황자료집 (I, II) (10,000원/권)
  - 최신판 정보통신용어해설집 (6,000원/권)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업무편람(25,000원/권)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시험기준(25,000원/권)
  - 기타 협회 발행 간행물